

목차 & 두 줄 요약



인슈어테크 24



해외

Sure, 보험업무에 대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신기술 출시 24

미국 인슈어테크 기업 Sure가 MCP(AI를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연결해주는 기술)를 통해 보험 계약 전 과정에 AI 에이전트를 접목하여, 자동 견적부터 계약 체결·유지까지 가능한 보험 자동화 시스템을 실현

볼트테크, 'AWS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25

싱가포르의 인슈어테크 기업 볼트테크가 아마존과 협업해 AI Factory 플랫폼을 출시하며 보험 상담 자동화와 고객 경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성형 AI 기반 보험 서비스 혁신을 추진 중

Markel, 파트너십을 통한 보험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적용 확대 26

Markel은 Insurate와 협력해 근로자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ME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수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솔루션을 확대 적용



정책

이중 규제에 발 묶인 디지털보험...혁신 일으키려면 27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몇 년간 자본규제를 유예하고 설계사 수수료를 낮춘 만큼 저렴한 보험료를 적극 광고할 수 있도록 마케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기업

보험금은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디지털 서비스에 꽃힌 보험사들 28

NH농협생명은 24시간 이용가능한 비대면 보험금 청구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전보험 상품으로 넓히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할 계획

KB손보, LG유플러스·스몰티켓과 데이터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해 맞손 29

KB손보가 LG유플러스 및 스몰티켓과 협력해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습관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개발할 예정임을 밝힘

AI로 건강관리와 보험분석까지... 카카오페이 '페이아이' 시작 30

카카오페이가 출시한 생성형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페이아이'는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및 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 관리 및 보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Sure, 보험업무에 대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신기술 출시

- 미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Sure는 AI 설계사가 자율적으로 보험 계약 건적, 계약 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업계 최초의 MCP*를 출시한다고 발표('25.6.10.)
 - * MCP(Model Context Protocol): AI를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규칙으로, 예를 들면 AI가 문서 읽기, 검색, 코드 실행과 같은 외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2015년에 설립되어 디지털 보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Sure는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 고객에게 디지털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Sure는 MCP 기능을 보험 인프라에 통합함으로써 AI 상담원,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을 통해 보험 인수부터 계약 체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보험 계약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Sure의 MCP 기능 출시 안내 이미지>



- 보험 분야는 복잡한 규제와 보상 조건 등으로 인해 AI 자동화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왔으나, MCP 기능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보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짐
 - AI 에이전트는 MCP를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른 실시간 보험 건적을 생성할 수 있고, 상품 간 결합 및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할 수 있음
 - 특히 24시간 내내 즉각적이고 정확한 AI 상담원의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보험 계약 체결까지의 시간을 95%, 고객 서비스 응답 시간은 80% 단축시키는 등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킴
- Sure의 MCP 기능은 보험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 고객과 개발자 등에게 즉시 제공되며, Sure는 2025년 한 해 동안 MCP 기능을 추가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

출처 : PR Newswire(2025.06.10.) Sure launches insurance industry's first Model Context Protocol (MCP) capability, enabling AI agents to quote, bind, and service policies



볼트테크, 'AWS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 글로벌 인슈어테크 기업 볼트테크(Bolttech)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생성형 AI 솔루션을 활용해 자체 AI 플랫폼 'Boltech Gen AI Factory(이하 'AI Factory)''를 구축했다고 발표('25.6.4.)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볼트테크는 4개 대륙 37개 시장에서 수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 아마존 커넥트(Amazon Connect), 아마존 렉스(Amazon Lex)의 생성형 AI 솔루션을 전면 도입하여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
- AI Factory는 단순한 서비스 요청 처리를 자동화해 상담원들이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AI Factory의 핵심인 '에이전틱 AI'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업무를 자동화하며, 보험 인수부터 청구 처리, 고객 서비스, 상품 개발까지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
 - 또한, '아마존 Q 디벨로퍼(Amazon Q Developer*)'를 활용해 코드 문서 파일의 업데이트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개발자들이 새로운 코드베이스를 학습하는 시간도 대폭 줄이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임
 - *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이 높아 개발자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다양한 직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챗봇
 - 이처럼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통해 실시간 상품 설명, 즉각적인 서비스 요청 처리 등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신속한 혁신을 지원하며 ▲예측 ▲예방 ▲복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
- 볼트테크 측은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생성형 AI 서비스는 다양한 모델 선택권,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 신뢰성 및 보안을 제공한다"며 이를 이용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 및 소비 방식 혁신을 지원할 것임을 밝힘

출처 : 한국클라우드신문(2025.06.04.) 볼트테크, 'AWS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Markel, 파트너십을 통한 보험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적용 확대

- 미국의 보험회사 Markel Insurance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부문에 중점을 둔 Insurtech 기업인 Insurate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Markel은 보험 보상 및 인수에 Insurate의 인공 지능 기술과 차세대 안전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빈도와 심각도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원
 - Markel은 엄격한 인수 심사, 장기적인 가치 창출, 그리고 소외된 보험 시장 지원에 중점을 두는 기업으로, 최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것을 결정
 - 이에 따라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Insurate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하고자 함
 - Markel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더욱 경쟁력 있는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AI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ME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Markel Canada의 인수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솔루션을 확대 적용
 - MEA의 에이전트형 AI 도구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있는 비정형적인 데이터들 (ex. 자필 기재란, 이미지, 녹취 음성 등)을 구조화하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추출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예정
 - 이를 통해 인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수작업을 줄이는 등 인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수 담당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고자 함
- 이와 같이 Markel의 업무 전반적인 AI 기술 도입은 보험 업계에서 AI와 자동화를 활용하여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고 수작업을 줄이며, 데이터 정확성을 향상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 : FinTech Global(2025.06.06.) Insurate joins Markel to power AI-driven safety scoring
Insurance Business(2025.05.28.) Markel expands partnership with mea Platform to Canadian business



이중 규제에 발 묶인 디지털보험...혁신 일으키려면

- 디지털 보험산업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업계에서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장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보험시장’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보험사의 전략과 규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보험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25.6.19.)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가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 2024년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최소 174억부터 최대 6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중 662억 원이라는 가장 큰 손해액을 기록한 캐롯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됨
-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2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전략의 한계가 생존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옴
-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보험사가 처한 제약들을 언급하며 ▲대형 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본규제 ▲가격 비교조차 허용되지 않는 마케팅 규제를 비판
 - 이들은 신생 디지털 보험사들은 시스템 구축에만 300억~500억 원을 써야 하는데 투자하는 순간 지급여력비율(K-ICS)이 반토막이 나게 된다고 하며, 유럽처럼 사업 초기 몇 년간 자본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현행 보험광고 규제는 가격 비교나 보장 수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설계사 수수료를 줄인 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더 싸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점은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로 영업하라는 것이라 일침
- 보험업계에서는 자본규제나 광고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보험사에 일률 적용되는 현재 방식을 디지털 보험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혁신의 싹을 자르게 될 것임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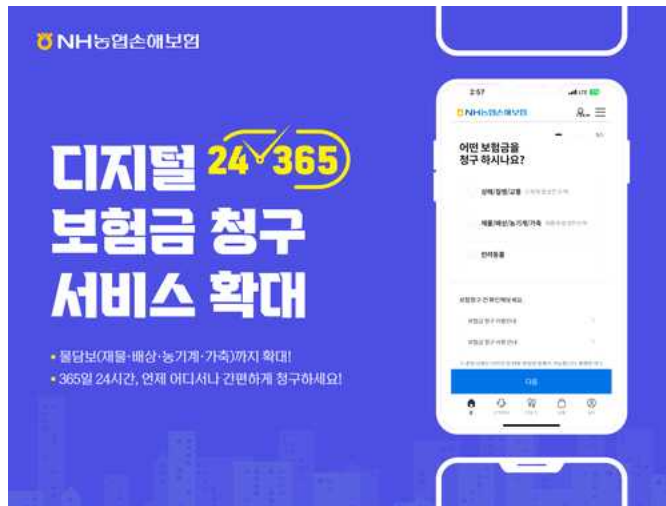
출처 : 매일일보(2025.06.20.) 이중 규제에 발 묶인 디지털보험...혁신 일으키려면



보험금은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디지털 서비스에 쫓긴 보험사들

- NH농협손해보험은 모든 상품의 보험금을 디지털로 청구할 수 있도록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전보험 상품으로 넓혔다고 밝힘('25.6.12.)
 -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대면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기존에는 질병·상해 보험 등 일부 상품에 적용했으나 이번에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으로 범위를 확장
 - 서비스 확대는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고객은 언제든지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AI가 제출된 서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즉각 지급함
 - 농협손해보험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현재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도입 안내 이미지>



- 그 외에도 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이익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신세대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많은 보험사가 디지털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음
 - 삼성생명도 AI 챗봇, 음성봇으로 고객과 영업 현장 문의를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적용 범위를 계약과 상담, 지급 등 보험 핵심 업무로 점차 확대할 계획
 - KB라이프는 최근 보험금 청구 금액 한도를 늘리고 기존에 입원·수술·통원 등 일부 담보에만 적용되었던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가 사망·재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로 넓혀 보험금 청구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확대 중

출처 : 매일경제(2025.06.12.) 보험금은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디지털서비스에 쫓긴 보험사들



KB손보, LG유플러스·스몰티켓과 데이터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해 맞손

- 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고 차량 데이터와 AI 기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자동차보험 상품 및 위험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힘('25.6.2.)
 - KB손보는 LG유플러스의 차량 관제 서비스인 U+커넥트를 기반으로 법인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FMS* 특약'을 개발할 예정
 - * Fleet Management Solution(차량 관제 서비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속도, 급가속·급감속, 운행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
 - 또한, 스몰티켓은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법인 고객 대상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FMS 특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 이번 협업으로 보험사·통신사·인슈어테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사고 예방 및 위험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
 - KB손보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역량과 리스크 관리 전문성, LG유플러스의 차량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과 인사이트, 스몰티켓의 보험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력이 더해져,
 - 각 산업의 전문성을 결합한 이종 산업 간 융합 모델을 통해 법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출처 : 보험매일(2025.06.02.) KB손보, LG유플러스·스몰티켓과 상품 개발 위해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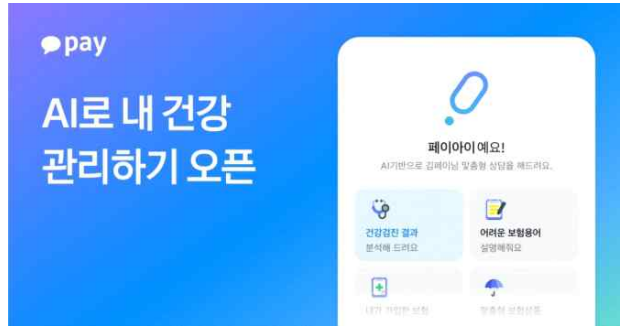




AI로 건강관리와 보험분석까지... 카카오페이 '페이아이' 시작

- 카카오페이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채널인 '페이아이' 첫 번째 서비스인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를 출시('25.6.17.)

<카카오페이의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출시 안내 이미지>



- 페이아이는 sLLM*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의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서비스 채널로, 채널의 첫 번째 서비스로 출시된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는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기반해 개인 맞춤형 건강 및 보험 상담을 제공

* sLLM(경량화 대규모 언어모델): LLM(거대 언어모델)보단 파라미터 사이즈가 작아 기업의 고유 데이터 등 특정 지식을 학습시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답변 제공에 특화된 언어모델

-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보험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최근 2년 내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용자가 취약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제공
-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복혈당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면 관련된 건강 리스크를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관리 방법과 식단 등을 추천
- 또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의 분석을 요청하면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사용자의 현재 보장 상태를 분석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용자 그룹의 평균 보장 금액 등을 비교해 안내
-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연결할 수 있어 보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 또는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메뉴에 있는 '편의' 카테고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 카카오페이 측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건강 및 보험 상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 "사용자 피드백에 집중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추후 페이아이 적용 범위를 기존 금융 분야를 넘어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분야까지 확대해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머니투데이(2025.06.17.) AI로 건강관리와 보험분석까지... 카카오페이 '페이아이' 시작